

# 영업시간 줄이고 현장판매...기업들 활로찾기

### 신세계 이어 롯데백화점 영업 단축...롯데아웃렛도 1시간 줄여 금호타이어 고객 찾아가는 타이어 무료 '교체대행서비스'

코로나19 여파에 고객이 줄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자 기업들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대형 유통업체는 고육지책을 '영업시간 단축' 카드를 꺼냈고, 타이어업체는 찾아가는 교체 서비스까지 선보이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짜내고 있다.

8일 (주)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에 따르면 두 백화점은 최근 평일·주말 영업 시간을 30분~1시간 30분 줄였다. 롯데백화점은 주중에 오전 10시 30분에 문을 열어 오후 8시에 폐점했지만, 한시적으로 오전 11시에 열고 오후 7시에 닫는 것으로 조정했다.

주말에는 10시 30분에 개점해 오후 8시 30분까지 영업을 해왔지만 이를 오전 11

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1시간 단축한다.

롯데백화점이 영업시간을 단축한 것은 영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롯데아웃렛 광주월드컵점과 수완점도 폐점 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 주중에는 오후 8시, 주말에는 오후 9시에 닫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원과 협력업체 사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롯데백화점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광주신세계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본관과 신관·식당가 영업시간을 30분~1시간 단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월 한달 간 광주신세계 매출은

전년 대비 13% 줄었고,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2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손님의 발걸이 줄어든다 직접 찾아가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서비스까지 선보인다.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유통점 '타이어프로'(Tire Pro)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고객을 찾아가는 '교체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여파에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호타이어측의 설명이다.

교체대행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기사가 방문해 차량을 수리하고 작업 후 가져다 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타이어프로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타이어프로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물과 전국 타이어프로 매장 전화예약을 통해 대상 제품 4분 구매 시 이용할 수 있다. 고

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 탁송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1억원 한도 보험 가입은 물론, 모든 기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자동차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르노삼성차는 신형 XM3 출시를 앞두고 국내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온라인 청약 채널을 구축하고, 온라인 전용 사전계약 혜택도 마련한 바 있다.

앞서 4세대 쏘렌토를 공개한 기아차도 사전계약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1만명에게 마스크 2장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제공했다.

쌍용차도 비대면 상담·구매 고객에게 전 모델 1.5% 우대할인 혜택에 개세제 전액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심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삼성전자 '갤럭시 S20' 본격 출시

### 이달말까지 130개국 확대

삼성전자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0'을 지난 6일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 본격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갤럭시 S20'을 출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베트남 등 동남아, 푸에르토리코 등 전 세계 약 20개국이다. 삼성전자는 3월 말까지 약 130개국으로 출시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갤럭시 S20'은 총 3종으로 1억8천만 화소 카메라와 6.9형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 S20 울트라', 6400만 화소 카메라와 각각 6.7형, 6.2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20+'와 '갤럭시 S20'이다.

'갤럭시 S20'은 역대 최대 크기의 이미지 센서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 촬영한 것이 특징이다. 3개 모델 모두 5G 표준인 단독모드(Standalone)를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정식 출시를 기념해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쿠팡·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갤럭시 S20' 자급제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AI 스피커 '갤럭시 홈 미니' 혹은 스마트폰에서 메모를 출력할 수 있는 소형 메모 프린터 '네모니 미니'를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코로나 불안심리 이용 부당광고 53건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40건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정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비롯,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였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3건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광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품(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관련 부

당 광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지난해 국내은행 적자 속 광주은행 영업 잘했다

###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7.7% 감소에도 13% 증가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 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국내은행 평균 영업실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4조 4000억원으로 전년(15조 6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7.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은행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은 1733억원으로, 전년 1533억원에 비해 13% 증가했다. 이는 6개 지방은행 당기순이익의 증가율(11%)도 웃돈 수치다. 지방은행 당기순이익은 1조

1000억원으로 전년(1조원)보다 1000억원 늘었다.

광주은행의 영업이익의 증가율도 국내은행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전년비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5.8%로, 광주은행 영업이익은 전년(2061억원)보다 12.8% 증가한 2324

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BIS자기자본비율은 16.02%, 보통주자본비율은 13.32%로, 국내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건전성과 함께 양호한 자본적정성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0.49%, 연체비율은 0.42%를 나타냈다.

광주은행은 성장세에 발맞춰 2022년까지 여수신 시장점유율을 광주는 4%포인트

트 높은 35%, 전남은 6%포인트 오른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40조원을 넘어 2년째 40조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순이자마진(NIM)이 1.56%로 0.11%포인트 하락했으나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6.5%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이자이익과 비(非)이자이익(1조원 ↑)은 모두 증가했으나 대손비용과 법인세비용, 영업의 손익은 감소했다.

대손비용은 6000억원 감소한 3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화이트데이 선물 목걸이·시계 어때요 (주)광주신세계가 '화이트데이'(3월14일) 판촉의 하나로 8일 2층 매장에서 선물용 목걸이·시계 등을 14% 할인 판매하고 초콜릿 증정 행사를 펼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로또복권 (제90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수	
5 18 20 23 30 34	2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267,974,667	9
2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50,775,553	67
3 5개 숫자일치	1,473,987	2,308
4 4개 숫자일치	50,000	114,451
5 3개 숫자일치	5,000	1,890,747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 늘었다

### 최근 10일간 277곳 신청 지난해 전체 지원보다 12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하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10일간 재택근무로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277곳이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3792명으로, 지난해 전체 지원 대상자 317명의 12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1개 사업장 11명이 신청했으며, 전남은 2개 사업장 18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를 포함해 노동

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 1인당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활용하면 5만원, 3회 이상 활용하면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고 노동자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520만원이다.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98곳)과 제조업(93곳)이 많았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8곳)과 도소매업(61곳)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189곳)이 가장 많았고, 10~29인(114곳), 30~99인(71곳), 100~299인(39곳), 300인 이상(13곳)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0년 3월호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문화광주, 컬렉션을 브랜딩하라

문화기획

5·18 40주년의 의미 되새긴다  
2020 광주의 문화성찬

클릭, 문화현장⑤-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 & 대통령 기록관

취라벌시대, 문화관광이 퐁다⑥  
눈호강, 마인 강변 박물관 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시디자인, 행복만 도시 풍경의 완성③  
서울은 지금 즐거움과 안전을 디자인하는 중

### 예향 초대석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최태지

"단원들 창작에너지가득, 지원 기대"

문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송 해남이 낳은 작가들과 작품들 땅끝순례문학관

화제의 아카데미 지역성 넘고픈 오스카 '기생충' 원했다

유현준의 도시건축⑦ 의자는 건축의 '줄기세포'

전시리뷰 하루.K의 <와신짬뽕>전

새봄 기획 새봄엔 역시 봄꽃 전문가가 추천해 드립니다

베트남의 대중문화 X파일⑧ 연예인 죽음으로 내모는 사생활 사냥꾼들

스포츠 이야기 KIA타이거즈 플로리다 스포링 캠프 현장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해가세요① 까칠한 소녀 얼굴에 웃음 준 반려견 '사랑이'

바람아주 날도 한바탕-나주 역사타고 문화속으로 나주 시간여행

-생생한 천년고도의 숨결 -특 쓰는 흥어, 달콤 멜론